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February 21, 2019 Vol. 660

김요한 목사 "성경 신학적 통일의 개념 정립 우선돼야"

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통일 전문가 세미나
통일의 전략, 서울과 한국과 평양과 땅끝까지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복음통일전문세미나가 열렸다.

성경 신학적 통일 개념 필요해

"제 안에 통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남에게 줄 수 없었다. 내 안에 그 개념을 정립해서 외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복음적으로 정립해 내는 컨텐츠가 없었다. 통일에 대한 역사 신학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것이 부재했다. 구약성경은 다윗의 통일 왕국을 모델로 제시하며 여호와와의 연합, 통일을 얘기한다. 북이스엘과 남유다의 분단은 신앙의 통일성이 훼손될 때 물리적 분단, 영토적 분단, 민족적 분단을 가져온다."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얘기할 때, 혹자는 '단군 조선 시대로부터 내려온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혹은 분단 유지를 위한 비용이나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실용적 가치를 말하며, 또는 안보에 관한,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당위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뼛속까지 김일성주의자"였다고 자신을 회상하는 김요한 목사는 정치, 문화, 경제, 안보 등의 시각을 통해 통일의 개념을 정의하려 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통일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재정립하는 데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 복음화의 꿈을 꾸자!"는 주제로 파세디나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에서 열린 복음통일 전문가 세미나 셋째날, 2월 14일(목) 오후 1시 30분에 통일선교전략협의회 대표 김요한 목사가 "통일의 전략-서울과 한국과 평양과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이끌며, 신학적 통일관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가 강조한 통일의 개념은 우선, "신앙의 통일성"이었다. 그는 이것이 민족의 통일의 열쇠라고 강조하며 신앙의 통일 상실이 영토 통일과 민족의 통일의 붕괴로 이어졌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조명하며 하나님과의 신앙적 통일의 상실로 인해 현재 남북한이 어떤 위험한 정황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성경 신학적 통일의 담론은 세상이 말하는 통일과 다르다. 하나님이 1876년도에 서상륜, 백홍준, 이성하, 김진규를 통해서 최초의 개신교 신자를 부르시고, 1884년에 황해도에 최초의 소래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는 조선교회였으며, 조선예수교 총회평양 동노회가 최초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뿌리이다."

"20년전 종합대학을 다닐 때 국방학이 필수였다. 국방연구원 교수가 와서 '우리 나라는 반드시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핵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과 반드시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을 움직여서 북미수교를 이루어내고 핵보유국이 되어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서방과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좋은 열쇠는 핵무기'라는 마오쩌둥한 유명한 말을 했다. 1967년에 마오쩌둥이 6차 핵실험을 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 [2면에 이어서 계속]

故 빌리 그래함 1주기… "오직 복음만이 삶 바꾼다"


윌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

빌리 그래함의 손자인 윌 그래함 목사가 15일부터 17일까지(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전도집회를 열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번 행사는 故 빌리 그래함 목사의 별세 1주기(2월 21일)를 앞두고 열렸다.

5월 전국 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필리핀에서는 정치적 동기로 인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남쪽에서는 테러 공격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윌 그래함 목사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할 때, 이 같은 어려움이 복음 전파에 더 큰 도움이 될 줄로 믿는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닐라에서 열리는 전도집회는 3세대 복음주의자인 윌 그래함 목사와 매우 특별한 인연이 있다. 그는 "할아버지는 제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셨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할아버지, 믿으실 수 없으실 거에요. 할아버지가 1977년 복음을 전하셨던 곳에서 제가 같은 복음을 전했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으며 마지막 3일 저녁에는 사람들을 대형 전도집회에 초청했고, 이 자리에서 나아온 수 천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전했다.

윌 그래함 목사는 "이 전도집회는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다. 할아버지 빌리 그래함 목사, 아버지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그리고 저까지 모두 설교를 한 장소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도 없었다. 그 자리가 수도 마닐라의 중심에 있는 퀴리노 그랜드스탠드(Quirino Grandstand)이다. 이곳은 그래함 3세대가 수 백만의 필리핀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끈 장소"라며 감격스러워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957년 빌리 그래함 박사가 이끈 대형 전도집회에 참석한 여성 루즈 알바레즈(84)는 62년 후 윌 그래함의 전도집회에서 상담사로 봉사했다.

그녀는 "여전히 기억이 난다. 1957년 그날 밤에는 비가 심하게 내리고 천둥도 쳤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자리를 지켰다. [3면에 이어서 계속]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팩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한인 매니저) T.(562)916-5191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예배 : 오후 5:30
■ 금요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남가주한인목사회
삼일절 100주년 기념행사 안내

● 28독립선언기념 조찬기도회
일 시 : 2월 8일(금) 7:30 AM
장 소 : 뉴서울 호텔
설 교 : 곽건섭 목사 (예은교회)
축 도 : 한기형 목사 (교협 회장)
대회사 : 김관진 목사 (목사회 회장)
만세삼창 : 권영신 이사장 (한국인민국회)

남가주한인목사회의 사역과 활동을 후원하시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도네이션 해주세요.
pay to order : SCKMA

● 삼일절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
일 시 : 3월 3일(주일) 4:00 PM
장 소 : 남가주 새누리 교회(박성근 목사시무) 구 성전
975 S. Berendo St. L.A, CA 90006
설 교 : 피종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축 도 : 한기형 목사 (남가주교협 회장)
대회사 : 김관진 목사 (남가주목사회 회장)
기념사 : 권영신 장로 (한국인민국회 이사장)
축 사 : 송정명 목사 (남가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격려사 : 김영균 회장 (남가주장로협의회)
설교 피종진 목사 | 대회사 김관진 목사 | 축사 송정명 목사
찬 양 : 남가주 목사 장로 부부 합창단 / 남가주 장로 성가단

● 리들리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 집결 안내
일시 : 3월 4일(월) 8:00 AM (정시출발)
장소 : 세계 아가페 선교 교회
933 S Lake St. L.A, CA 90006
■ 방문행사
– 예배
– 기념식
– 삼일독립만세 재현 퍼레이드
■ 참가문의 및 접수
김관진 회장 T.(213) 321-6019
박세헌 부회장 T.(323) 404-3147
강태광 총무 T.(323) 578-7933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회장 : 김관진 목사 T.(213) 321-6019
총무 : 강태광 목사 T.(323) 578-7933

[1면에 이어서] 닉슨 대통령이 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중국이 핵보유국이 되면 3차 대전을 해서라도 막겠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그것을 무시하고 1969년에 6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다. 1970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를 맺었다. 저는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핵보유국이 되나'라고 생각했다. 불과 십년전에는 불가능하던 일이었다."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았다면 미국은 절대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이라는 표면적 이벤트 이면에는 비공식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9번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아야 한다.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고 경고하셨다. 핵보다 더 끓는 가마가 어디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위기'를 외쳤으나 거짓선지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냐'며 예레미야를 향해 침을 뱉었다. 종교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세계 9개 핵무기 보유국 가운데 비핵화를 한 국가는 하나도 없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 공장을 파괴했으나 이미 8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핵무기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핵보유국이다. 2017년 11월 27일 북한은 제 6차 핵실험을 성공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보유국(미국, 러시아,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www.sipri.org) 9위에 들어갔다."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한 것이다. 그것이 정상회담의 의미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신다.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한반도의 영적 현주소가 무엇인지가 나온다."

다윗의 통일왕국의 핵심원리: 신앙의 통일성

그는 예레미야 50:4-5절 말씀을 근거로, 남과 북의 연합은 남과 북 각국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누구와 연합하라고 말하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와 연합하라고 하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는 것은 여호와와 연합하면 된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연합하고, 남유대가 여호와와 연합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통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다윗의 통일왕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하나님과 통일된 신앙의 통일성에 있다. 그래서 12지파가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

"오늘날 하나님이 한반도 한민족을 부르셔서 1907년 평양 대부흥, 100만명 구령운동(1909)을 통해서 제 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나 어느날 부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종교 커뮤니티로 전락했다. 종교집단으로 전락해서 영적 무능, 불능 상태에 빠졌다. 오죽하면 평양에 있는 김일성 신자를 불러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겠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통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통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통일"(에베소서 1:10)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학적으로 분단의 원인은 죄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단된 것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과 분단된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분단을 가져오고 피조물과 사람의 분단을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하나님과 분리의 원인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과의 분단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

그는 통일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나누고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통일을 경험했는지 설명했다.

"저와 여러분이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때문이다. 철저한 김일성 신자가, 레닌주의자, 마르크스, 엥겔스 주의자가,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여러분과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이다."

"풀러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제게 성령님께서 통일의 개념을 조명해 주시는 순간 너무 기뻐서 도서관을 뛰쳐나오며 만세를 불렀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정치 사회학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통일의 개념에 대해서만 들었다."

그리스도 안의 통일이 어떤 것인지 삶에서 경험해

지난 17년 동안 성도 수 2000명 정도 되는 중형 한국교회에서 탈북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으며, 이민교회에서 교육목사로, 교육 디렉터로 목회를 한 김 목사는 세계 여러곳에 나와 있는 북한 유학생들을 훈련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오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였기 때문이다.

"제가 목회할 때 이질감이 거의 없다. Born again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어떤지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한다."

그는 북한선교를 '선택사항'이 아리라며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다.

"랄프 윈터 박사는 건강한 공동체는 로컬, 나라, 민족을 복음화, 열방을 복음화하는 데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이 더욱 부강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우리나라에 있다."

장대현 교회가 있던 곳에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금신상

그는 초기 한국기독교의 역사를 훑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돌뱅이로 압록강을 건너 심양지역에서 행상을 하던 서상준과 백홍준이 존 로스 선교사와 메킨타이어 선교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어떻게 자민족의 자생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지 설명했다.

"서상륜과 백홍준은 압록강을 지나서 심양지역에서 행상을 하다가 성경 번역을 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존 로스 선교사와 메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 번역을 도와주다가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들은 성경을 갖고 들어가면 참수를 당하던 시대에 조선말로 번역된 마가, 누가복음을 낱장으로 찢어 멜빵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다림질해서 제본해 전도하기 시작했다."

"서상륜이 전도를 시작해서 1884년도에 황해도에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2000년 선교 역사 중에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자국의 토착화된 교회와 성경을 갖고 있던 유일한 교회가 조선교회다. 이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한국교회 성장의 초석이 되었다."

"여기서 시작해서 원산대부흥, 평양 장대현교회 대부흥, 100만명 구령 운동이 일어났다. 평양 장대현교회가 있던 곳은 제가 태어나서 수백번 올라가서 참배했던 곳이기도하다. 오늘날 만수대 광장, 23m 높이의 김일성, 김정일 금신상이 있는 곳이다. 평양 대부흥이 있던 곳에 김일성의 금신상이 서 있는 것이 우연일까? 지금 한반도의 영적인 현주소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시자 사탄은 일본을 통해서 신사참배하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을 우상에게 무릎 꿇게 했다. 1938년도에 한국교회가, 장로교가 공식적으로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다. 1945년도에 해방이 왔지만, 이북에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진영이 자리잡게 됐다."

8.15 해방 경험했으나 50% 해방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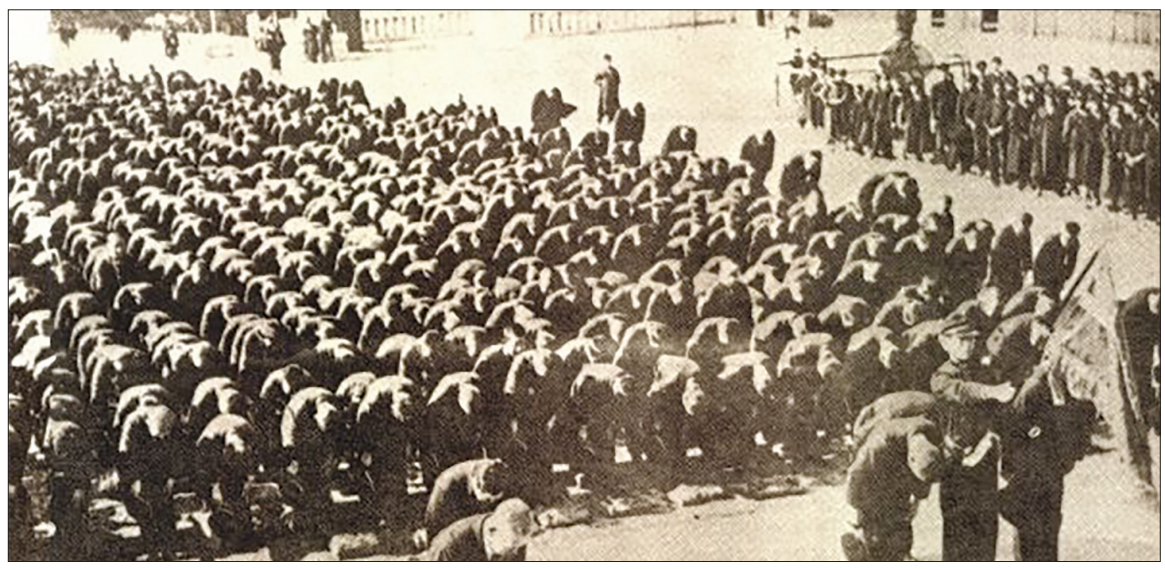
"8.15를 떠올리면 우리는 해방을 생각하지만, 북한은 한번도 해방을 경험한 적이 없다. 일제나, 나치즘보다 파시즘보다 더 강력한 전근대적인 사탄의 폭압 속에서 더 고통당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진정한 해방이 온 적이 없고 50%의 해방밖에 오지 않았다."

"신사참배 운동 때, 일본 천황 앞에, '우리는 천황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산대부흥 운동에서 우리가 외쳤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성입니다'였다. 그러나 사탄이 그것을 바꿨다. 북한의 구호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김일성의 민족입니다'이다."

그에 따르면, 레닌, 막스, 자본주의 개념들, 사회주의 이념들은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로 북한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데올로기 싸움은 "끝없는 수렁으로 이끌어 갈" 뿐이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의 검', 말씀 밖에 없다.

"철저한 김일성 주의자였던 저를 변화시켜 복음 통일에 대해 강의하게 한 것도 말씀이었다. 우리가 제대로 깨어나면 북한은 '여리고 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복음이 들어오면 모두 붕괴된다. 북한은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왜 북한이 복음을 못전하게 하나, 자기들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어렵지만, 폴란드, 중국, 러시아, 올란바토르 등 전세계 16개국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 15만명을 비롯해 많은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전략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며 강연을 마쳤다. 주디 한 기자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총독부와 친일 목사들에 의해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에 무릎을 꿇음으로 오욕의 역사를 남겼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장영란 장로, 유화진 권사, 김민선 집사

세계기도일예배

올해 '슬로베니아' 위해 기도한다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서 진행

전세계 여성들이 고통 받는 국가의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세계기도일예배가 올해로 132주년을 맞이해 3월 9일(토)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로 슬로베니아 여성들이 기도문을 작성했다.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지부 회장 유화진 권사는 인터뷰에서 "각 교회마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초교파적인 모임이니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세계기도일예배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특히 젊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세계기도일예배를 위해서 40일 전부터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 동양선교교회에서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세계기도일예배 이후에도 매달 만나 기도모임을 갖고, 그 해 주제로 정해진 나라를 위한 기도의 끈을 붙들고 1년을 지낸다. 유화진 권사는 "예전에는 여성 인권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여성으로 국한된 측면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세계기도일예배 홍보가 잘 되어서 남자분들도 참여해 남녀를 불문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인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폭을 닫지 말고 넓게 열어서 함께 어울러져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기도일예배에는 특별히 기독합창단, LA여성선교합창단, 정신여고합창단, 헷세드글로벌여성선교회, 포레스트챔버 등이 참여해 찬양을 하게 된다.

1887년 다윈 제임스 여사(미국장로교 국내선교부 의장)가 당시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된 세계기도일은 현재 180개국에서 지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1922년 만국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기도일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다. 한국은 1930년 "예수님만 바라보며", 1963년 "이기는 힘", 1997년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라는 주제로 기도문도 세번이나 작성한 바 있다. 미주에서는 한인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1979년부터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 전 미주 70여개 지역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이 기도회에서는 기도문 작성국의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전세계 여성들이 함께 읽으며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 그 나라로 보낸다. 또 단순히 기도문을 읽고 헌금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까지 함께 나누며 그 나라 여성들과의 공감대를 이룬다.

토마스 맹 기자

라하브라에 '미라클포인트교회' 개척돼

"치유 통해 새인생을 출발하게 하는 비전 품고"



박재만 목사

박재만 목사가 라하브라 지역에 개척을 시작했다. 교회명은 '미라클포인트 교회'이며 내일에 대한 소망과 어제에 대한 치유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는 비젼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박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부목사, 베데스다대학 교수, OC교회협의회 부회장, 남가주순복음교회 담임을 역임했다. 예배시간은 오전 8시와 10시 30분이며 주소는 1540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문의) 714-822-7721



미주장신대학교가 합창단을 창단하고 감사예배를 19일에 드렸다.

미주장신 합창단 창단

"영과 진리로 찬양하자"

"이민교회서도 적극적으로 섬길 것"

미주장신대학교가 합창단을 창단하고 감사예배를 19일(화) 오전 11시 40분에 대학 채플실에서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합창단은 특별찬양으로 두 곡을 부르는 등 창단을 자축하고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상명 미주장신대 총장은 "이번에 합창단을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민교회에서도 함께 찬양으로 섬기기 위해 만들게 됐다"라면서 "2년 전 학교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음악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했었는데 저희 합창단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격조가 높다고 증거했다. 앞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한다"고 축사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4:23-24)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최명환 목사(아름다운동산교회)는 "여러 집회에 참석해보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계신지 안계신지 점검해 보는 습관이 있다. 어느 집회이든지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신가 꼭 돌아봐야 한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이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다"라고 했다. 이어 최 목사는 "불신자도 영이 있다. 그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죽은 자라고 할수 있다"라며 "한국교회에 죽은 자들의 예배가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설교자가 영으로 설교하면 영으로 전달되고, 찬양도 입으로가 아닌 영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이다. 오늘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길 축원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예배 순서는 기원에 최재우 단장, 대표기도에 최유진 팀장, 말씀봉독에 박현정 회계, 특별찬양에 미주장신 합창단, 말씀선포에 최명환 목사, 격려사에 박충기 목사, 축사에 이상명 총장, 축도에 최명환 목사, 광고에 전우진 총무 순으로 진행됐다. 합창단 측은 "미주장신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합창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1면 '빌리그래함'에 이어서] 오늘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 분의 손자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필리핀에 매우 큰 축복"이라고 했다.

윌 목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신 것, 이것이 바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하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전해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기도일 예배 역사

† 1887년 미국 장로교의 Mary James에 의해 시작됨

† 선교사들을 통해 이 기도모임이 전세계로 확산됨 현재 180여 개국에서 세계기도일 예배에 참여함

† 1922년 한국교회 여성들이 처음 참여함

† 1930년 '예수만 바라보며' 란 주제의 기도문을 김활란 박사가 작성함

† 1963년 '이기는 힘' 이란 주제의 세계 기도문을 한국교회 여성들이 만듬

† 1979년 미주 한인교회 여성들이 참여함

† 1984년 미주 한인교회 여성전국연합회 조직됨

† 1997년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란 주제로 한국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가지고 전 세계의 여성들이 기도드림

† 2002년 본회 명칭을 '한미교회 여성연합회'로 개정함

† 2006년 한인교회 여성연합회와 세계 기도모임의 두 로고를 함께 쓰기로 함

† 2008년 본회명칭을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로 개정함

조 직 도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다양한 교파의 교회 여성들이 화해와 일치의 연합 정신을 바탕으로 여성지도력 양성, 선교활동, 세계 기도일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연합체이다. 32년간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미 전국 400여 교회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KCWU, USA

Tel: (650) 776-3479
email: kcwu.usa@gmail.com

세계기도일

매년 3월 첫째 금요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엡 6:18)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KCWU, USA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00〉

애틀랜타 사역자 콘퍼런스를 마치고(1)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애틀랜타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인터콥선교회가 마련한 "사역자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주를 중심으로 한 선교회의 사역자 약 700여명 모여서 "History Makers to the last frontier"의 주제로 예배와 말씀, 그리고 사역보고와 간증들을 나누었다. 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터콥선교회에 변화의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는다. 이번에도 놀라운 모습을 통해 이제 인터콥선교회가 한국 민족만 사역하는 단체가 아니라 세계의 다민족들이 어우러진 글로벌 선교단체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았다. 매년 감동하는 것이지만 모임의 대부분이 청장년들로 구성된다. 모든 프로그램과 진행을 다민족 청년 사역자들이 담당한다.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준비기도회를 갖고 각 파트의 봉사자들을 선출하는 것 등 대부분을 청년 사역자들이 진행한다. KM과 EM 그리고 다민족 스텝들이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 집회를 만들어낸다.

집회장의 열기는 참으로 대단했다. 찬양팀만 보아도 다민족들이다. 그들이 찬양으로 하나 된다. 대부분 찬양은 각 선교지 현지인들이 부르는 찬양이다. 이슬람권 나라에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때로는 그들의 언어로 때로는 번역된 언어로 힘껏 부른다. 아마도 그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많이 놀랄 정도로 뜨겁고 경쾌하다. 은혜롭고 강력하다.

700명의 사역자들은 세계선교에 헌신할 것을 결단한 사역자들이다. 비전스쿨을 수료하고 이슬람권 단기선교를 다녀 온 후 각 지역에서 계속적인 선교 네트워크 훈련을 받아 낸 사역자들의 모임이다. 그들의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듯하다. 첫 시작 찬양으로 시작되는 때부터 모든 진행이 영어와 한국어 통역은 물론 아랍권의 언어를 영어로 때론 한국어로 통역해 내는 선교사들, 학생선교사들의 통역수준이 대단하다. 하나의 영적 작품이다.

각지의 장기선교사들의 말씀과 선교보고에는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묻어 있다. 필자는 그들의 입에서 낙담적인 표현을 들어보지 못했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붙잡았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현지 영혼들을 만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기쁘기만 했다.

선교지의 변화하는 모습을 들을 때는 모두가 감사했고, 마지막 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자는 결단이 쏟아졌다. 누가 선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하는가? 누가 선교를 폄하하며 한국 선교가 끝났다고 말하는가? 그들은 이들의 사역을 보아야 한다.

이들은 매년 7월에 시카고 휘튼 칼리지에서 2천명이 넘는 전 세대가 참여하는 "선교캠프"를 갖고 있다. 사역자 콘퍼런스는 선교캠프를 준비하는 사역자들의 첫 모임이기도 하다.

이 두 집회의 축은 훈련이다.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와 모임의 연속이다. 사역자들의 네트워크는 실로 사랑의 관계이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감이 된다. 유행성 선교는 위축되고 사라지지만 이들의 '전략적 선교'는 그 뿌리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인터콥 선교회에서 이루고 있는 '전략적 선교'는 이제 차세대 롤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선교이다. 후방에서 이토록 전인적으로 또한 장기간 훈련받은 청장년들이 2주의 단기선교를 시작으로 하여 매년 선교지의 땅을 밟으며 선교에 참여하다가 1년, 2년 단기사역으로 헌신하고 그후에 장기 선교사 파송을 받는다. **(계속)**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절대 행복을 노래하라!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성도는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가 기쁘게 살아야 함을 신구약 전체가 가르칩니다. 바울은 서신들을 통해 기쁨을 가르치며 기쁨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가득한 기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 자신이 감옥에서 누리는 강력한 기쁨을 선포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거듭 도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서신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구약에서도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반복됩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제사할 것을 거듭 거듭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는 다양한 즐거움을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즐겁게 섬기라! (2:11)' '여호와를 즐거워하라!'(32:11, 33:1) 또 시편 기자는 '땅과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로다!(96:12)' 고 명령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시편들이 반복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스바냐 3장14절에서는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합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포로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합니다. 기쁨은 조건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정서가 기쁨입니다.

스가랴 10:7에서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기에 누릴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면 그들이 누릴 큰 은혜가 있음을 예언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릴 충만한 기쁨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이 하나님 백성들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즐거운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요컨대 성도들은 기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성도의 기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성경에서 복이 가장 많이 언급된 장입니다. 떡반죽 그릇과 가축들조차도 축복의 대상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전 포괄적인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신28:20절 이하에서는 불순종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특히 47절, 48절에는 기쁨으로 섬기지 못함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섬김의 삶과 기쁨의 삶이 복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누려야 할 '기쁘고 즐거운 삶'을 현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는 길입니다. 성도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행복한 삶은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합니다. 왜냐하면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십일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며 행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처럼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기쁨의 삶을 살며 행복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께 드릴 성도의 선물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해야 합니다.

필자는 종종 하박국의 고백(합 3:17~18)을 흥얼댑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기쁨의 외침이 진짜 예수장이의 표지(Mark)라고 믿습니다. 이글을 읽는 독자들마다 이런 절대 행복을 노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학생 및 신학생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강좌

유학생 및 신학생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강좌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오렌지카운티 플러튼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 내 Grace Library GL2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본 무료 강의는 모든 유학생들과 특히 신학생들에게 유익한 세금관련 정보와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를 위한 유익하고 실질적인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예정이다.

이번 무료 강의를 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담당 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1. 개인 세무보고란- Income Tax Return 2. 세무보고를 위한 조건-CPT, OPT, On Campus 3. 세금보고와 소셜번호(SSN) 4. 고용과 소득에 대한 이해 5. 세무 보고가 주는 혜택 6. 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특혜 7. 유용한 세무 정보- Credit Card 및 Credit Score 8. 기타 질문과 응답이며 2019년 3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강의와 관련한 기본 안내서는 당일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E-file 서비스도 가능하다.

장소: Grace Library GL2 강의실 (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문의전화:714-393-4595(Center)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빌립보서 3:1-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본문 빌립보서 3:1-14

1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영적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영적 체질 인생은 영적 가치관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의 내용과 같이 교회의 목자들은 항상 그 양떼들의 영적소망이 가장 안전한 가운데 영광스러운 결실을 이루어가게 하려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 핵심적인 중요한 교훈을 자주 되풀이해서 일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의 엉터리 주장을 경계하고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말은 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을 경계하며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손할례당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에 대한 논쟁으로 할례 자체의 의식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할례: 메시야를 주실 대상으로서의 표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 남자가 태어나서 여드레가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대상으로서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표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오랜 세월을 되풀이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다짐해 오신 메시야라는 그리스도를 주실 대상으로서의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그 죄가 엄청난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가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간에 전혀 차별 없이 구원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손할례당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받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택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게 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감동체험도 주십니다. 그렇게 믿어질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는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면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생각과 말과 행동, 사는 목적과 방법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새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곧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을 완전히 뒤집어 쏟아 내던지고

바울은 인간적인 배경으로는 누구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6에서 그는"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훗날 하늘나라를 위하여 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되는 것들로 화장실의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회개할 때 자기를 완전히 뒤집어 쏟아서 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기 심령에 채워지는 이 한 가지 은혜 충만한 신령한 소망의 기쁨을 목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이런 변화가 없다면 교회를 헛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義)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던지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소원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음박질하여 좇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달음박질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이 원수마귀 소굴이기 때문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핍박은 더 심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껏 행한 일들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렇게 믿을 생각 없으면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결국 헛다니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사에 성령의 역사하심 드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한국교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의 구원의 서정이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밖에 있던 사람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에 진입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궁극적인 실현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라기 보다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서는 미리 정하심(예정), 부르심(소명), 거듭남(중생), 회심(회개와 믿음), 칭의(롬3:24), 하나님의 자녀(양자), 성화(롬6:4-6, 갈5:16-18), 성도의 견인(히3:14), 영화 순입니다.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

이것은 모든 구원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과정도 필요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하고 영적가치기준이 예수님과 일치해서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조건들을 채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미주 크리스챤 문학 마을

행복한 글쓰기 교실

1. 행복한 수필 쓰기
인생의 추억과 교훈을 근사하게 남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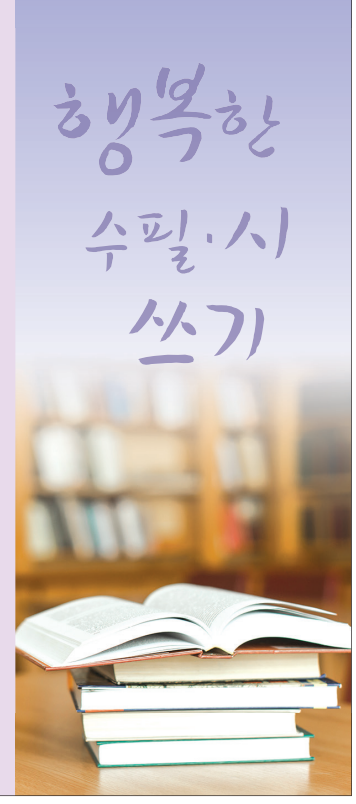
2. 행복한 시 쓰기
가슴에 담긴 노래를 시로 풀어 놓으세요.



강태광(목사, 시인, 시조인)

- **일시** : **2월 23일(토) 오전 10:00** (사전 등록 받습니다)
- **장소** : 크리스챤 문학 마을
  621 S. Virgil Ave. #260, LA, CA 90005

*작가가 되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비로 책 출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속적인 작품 발표를 도와 드립니다.



미주 크리스챤 문학 마을 회장 : 강태광 목사 (323)578-7933 사무총장 : 김헬렌 (818)923-8004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 · 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37%	21%	14%	12%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 관련사망	심장마비	뇌졸증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미주밀알 단장회의 참석자들

미주 밀알 단장 회의 열고 장애인 선교 비전 고취

장애인 선교에 앞장서 온 "미주 밀알 선교단(총단장 정택정 목사)" 단장회의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주 린우드에 소재한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밀알은 하나, 그리고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밀알 4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미주 밀알 단장회의에는 그 동안의 밀알 사역을 회고하고, 앞으로 밀알 장애인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점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장회의는 워싱턴 D.C 밀알 정택정 목사를 비롯해 필라델피아 이재철 목사, 뉴저지 강원호 목사, 뉴욕 김자송 단장, 샬롯 이승민 전도사, 시카고 남성우 목사, 토론토 김신기 목사, 리치몬드 서바울 목사, 아틀란타 최재휴 목사, 플로리다 박민선 연락소장, 시애틀 장영준 목사, 북가주 김정기 목사, 남가주 이종희 목사, 텍사스 이재근 목사, 캐나다 벤쿠버 이상현 목사, 브라질 최은성 목사, 아르헨티나 이주희 단장 등 북미와 남미 지역 밀알 사역자들이 참석했다. 단장회의에서는 미주 밀알은 장애인 선교 사역자와 봉사자 교육을 위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선교와 복지의 모델로 텍사스 밀알의 그룹홈과 주중 장애인 데이케어의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또한 은퇴 사역자들의 적적한 사역 재배치와 8월 한국에서 있을 밀알 40주년 행사의 전반적인 토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밀알은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장애인을 돕는다. 장애인을 바로 알린다"를 취지로 1979년 한국에서 시작돼, 현재는 미주,유럽, 남미 등지에까지 세워져 '세계 밀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세계 밀알은 세계 곳곳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기 예배와 집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캠프, 장애인 학생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밀알의 밤 등을 개최하며, 복음 전파와 봉사, 장애인을 사회에 바로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고 있다.

총 단장 정택정 목사는 "전 세계 각 지역에 밀알을 세우면서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 곳일수록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적고, 심지어 방치되다시피 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또한 후진국일수록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인격적 처우나 혜택이 없다. 우리 밀알은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꿈을 가지고 밀알의 개척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주위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이자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좀 더 다가가서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더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단장회의에서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장애인 부서인 사랑부와 미주 밀알선교단의 헌신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가졌다.

시애틀 밀알 장영준 목사는 "헌신예배는 폭설이 내린 가운데서도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성도들과 사랑부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밀알의 사역자들이 함께 한 귀한 시간이었다"며 "헌신예배를 통하여 더욱 장애인을 섬기며 선교하는 밀알이 되길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GRS, 선교학 박사 과정 개강예배 및 사무엘 랄슨 총장 추모예배 드려


GRS 2019 봄학기 개강예배

글로벌리폼드신학교(원장 김은수, 이하 GRS)가 지난 11일(월) 본교 캠퍼스인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에서 선교학 박사 및 석사 과정 봄학기 개강예배를 드렸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GRS 선교학 박사(Ph. D/Intercultural Studies and Ministries, D. Min/Intercultural Ministries) 과정과 선교교육학 석사 (M.A/Intercultural Education Ministry) 과정은 금년 12월 초순까지 애틀란타 본교 캠퍼스 및 LA, NY, 필리핀 마닐라, 멕시코 티후하나 그리고 서울과 동경에서 Intensive Course로 제공된다.

이번 주 제공되는 선교학 박사 과정은 GRS의 명예총장이자 저명한 기독교교육학자인 알렌 커리 박사의 '교회교육'이며, 다음 주에는 GRS 원장인 김은수 박사가 Research Design을 제공한다. 이번 강의에는 뉴욕과 LA, 그리고 애틀란타와 플로리다 등에서 약 15명의 목회자들이 수업에 참여한다.

미국 남부의 개혁주의 신학의 산실인 리폼드신학대학원의 선교학 박사 과정을 계승하면서,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열방의 교회 및 선교를 위한 능력 있고 신실한 최고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작된 GRS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 그리고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완전 제로에서 시작하여 지난 6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이제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교회 및 신학교들 사이에 선교전문대학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GRS는 미국 애틀랜타 본교 외에 필리핀의 따가이따이 아시아 사이트, 서울 사이트, 동경 사이트, 스패니쉬 프로그램을 위한 티후하나 멕시코 사이트, 그리고 미국의 뉴욕과 LA에 사이트를 두고 교육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호주의 시드니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도 선교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의 수업이 제공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30분에는 작년 10월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GRS의 전 총장 사무엘 랄슨 박사의 추모예배가 드려졌다. 사무엘 랄슨 박사는 미국 해군 군목과 아프리카 케냐 및 호주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으며,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에 소재한 RTS에서 탁월한 개혁주의 선교학 교수 및 GRS의 제2대 총장으로 사역하며 한국과 세계의 선교학 분야의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앤더슨 김 기자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버질중학교(1가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213) 267-0030 www.churchla.org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 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 lasehil2011@gmail.com
(8가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EM 오후 12:3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7:30
영유아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은혜집회 오후 8:00
유치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정동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신용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장주영**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조준민** 담임목사
수요기도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查经班：周二 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목** 담임목사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송재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818)363-5887 Tel: (3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종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F.(818)549-9199 / choonghyun.org

"다양하면서도 획일적인 한국교회 예배… 열린 마음 필요"

안덕원 교수, '한국교회 예배 톺아보기' 강의



세미나 모습

잡지 〈목회와신학〉 창간 3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예배 톺아보기'라는 주제로 18일 오후 서울 서빙고동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기념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2년간 45곳의 교회를 탐방하며 〈목회와신학〉에 연재하고 〈우리의 예배를 찾아서〉로 엮어낸 안덕원 교수(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가 주제 강의를 전했다. 먼저 그는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성격을 갖고 있는가"라며 "우리의 예배 중 계승해야 할 것과 과감하게 버려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다.

안덕원 교수는 "한국교회의 예배는 다양하면서도 획일적이었다"며 "본질적 요소에는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한국 개신교 예배의 자리로 두 가지를 거론했다. 먼저 예전 갱신운동(Liturgical Movement)과 카리스마적 갱신운동(Chrarismatic Renewal Movement)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1982년 WCC 신앙과직제위원회의 페루 리마 문서 등을 통해 성만찬 같은 예전을 갱신할 수 있었고, 카리스마적 갱신운동에서 구도자 예배와 현대적 CCM 등 많은 영향을 받았다"며 "한 가지 더한다면 선교 초기 전도와 회심, 체험을 강조하는 소위 '개척자예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분법적 구분 대신 둘 이상의 특징을 뒤섞은 '블렌디드(Blended) 예배'이다. 그는 "예배는 얼마든지 섞일 수 있고, 섞여야 하고, 섞어서 창조적이고 유기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답습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라며 "모두가 온누리교회나 만나교회처럼 예배드릴 순 없다.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환경이 좋다 해서 꼭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안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철학"이라며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교회의 선택에 따라 부분적 블렌디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의 교회에서 예배마다 다양한 형식을 띨 수도 있다는 것.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거나, 서구의 예전과 한국적 전통의 조우를 추구하는 교회도 있다. 먼저 '부분적 블렌디드' 사례를 들었다. 소망교회 예배는 칼빈의 스트라스부르와 제네바 예전과 유사하고, 담임목사가 낭독하는 '참회의 기도'가 유려하다. 청파교회는 감리교 예전에 충실하고 떼제 공동체 음악을 수용하며, 설교 후 침묵으로 '거둠의 기도'를 드리고 절기를 시작할 때마다 '시간의 매듭'으로써 성만찬을 실시한다. 설교자는 문학적 언어를 사용해 감동을 선사하고, 유아세례도 특징적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대해 그는 "왠만한 장로교회들보다 더 예전적이다. 매달 성만찬을 하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교독문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며 "'주여 삼창'에 대해서는 반감도 있겠으나,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안덕원 교수는 "획일화되고 예전이 너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다양한 요소가 들어있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며 "천편일률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쉽지, 전통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덕수궁 옆 성공회 주교좌성당에 대해선 "옥스퍼드 출신 고교회 전통을 따르는 이들이 선교사로 초기에 들어왔기에, 전도와 함께 사회정의와 복지 등에 관심이 많았다"며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지만, 예전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제가 영국에서 드린 예배보다 대한성공회의 예배가 더 예전적이었다. 국악 찬송도 드리더라"고 했다. 안 교수는 "100주년기념교회 예배당을 들어가 보면, 소박한 공간 속에 담기는 메시지가 있다"며 "무엇보다 개신교회가 고딕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딕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메시지와 나름의 신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했다.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는 교회들로는 만나교회와 온누리교회, 아현성결교회와 국수교회 등을 꼽았다. 만나교회 1부예배에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합심·안수기도를 진행하고, 온누리교회는 매달 첫 주일 성만찬을 실시한다. 그는 "온누리교회 1부예배는 전통 예배에 소리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2부예배를 즐겨 참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통추위 구성 한기총과 통합 추진 본격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18일 오전 제8-2차 임원회의를 갖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와의 기구 통합을 논의할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했다.

한교연 통추위에선 송태섭 목사(공동회장 한장총 대표회장)가 위원장을, 김효종(상임회장, 예장 호헌 총회장)·김동성(예장 대신 증경총회장)·박만수(예장 개혁개신 총회장)·김병금(서기) 목사가 위원을 맡는다. 앞서 양 기관 대표회장은 지난달 31일 만나 '상반기 내 통합'을 선언했었다. 당시 양측은 △2월 말까지 양 기관 통합에 서명하고 △이후 각 통추위를 통해 6월 말까지 통합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임원회에서 권태진 대표회장은 "(당시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과) 한국교회가 하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해 양 기관 통합 합의서에 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교연 관계자는 "이번 만큼은 한기총과의 통합에 적극적인 분위기"라며 "우리가 그 동안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것이 7.7정관이었는데, 마침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 대표회장은 최근 취임 전후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하나돼야 한다. 그 중심에는 7·7 정관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시종 피력해 왔다. 얼마 전 공청회에서도 "통합의 원리는 하나, 7.7정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었다. 한교연 권대표회장도 지난 15일 전 대표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님이 (한기총 한교연을) 합치자 하시길래 그러자고 했다"며 "그런데 어떤 이는 '한두 번 (통합하기로) 사인했냐? 과거에도 해놓고 다 (무산됐다)'고 한다. 그러나 (통합하기로) 사인한 것은 서로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통합 의지를 나타냈다.



J.D. 그리어 목사. ⓒ페이스북

美 남침례회 총회장 그리어 목사 "피해자 더 있다면 나와달라"

최근 미국 남침례회에서 700명의 성학대 피해자가 나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J.D. 그리어 총회장은 "보도된 내용이 문제의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서 "또 다른 희생자들도 앞으로 나와서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어 총장과 브래드 햄브릭 목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숫자의 규모만 보면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점은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비극적인 사실이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일들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희생자들을 위해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햄브릭 목사는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 소재한 서밋교회(The Summit Church)에서 상담을 맡고 있으며, 남침례회 신학교에서 '성경적 상담'의 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밋교회는 J.D. 그리어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다.

J.D. 그리어 목사는 "예수님은 성전 안의 죄를 덮어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감추어진 모든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신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경시하거나 덮어버릴 때, 이는 예수님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분과 싸우는 것"이라며 "어떤 교회도 휴스턴 크로니클의 보도 때문에 좌절해선 안된다. 오히려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결코 숨겨지면 안될 일을 밝히려는 신문의 연속 기사보다 훨씬 말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목사는 아직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교회 목회자들에게 아동학대 혹은 성폭력 상담센터 등의 연락처를 교인들에게 공유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교회의)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충동을 피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 대한 허물에 대한 기사가 드러났을 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방어적이 되기 쉽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비극이 될 것이고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은 우리가 교회의 명성이 아닌 당신들의 안전에 더 큰 염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길 바란다.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은 (교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이곳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모호해지거나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배우 제임스 폴크너 "'바울' 연기하면서 성령 충만 경험"



영화 '바울'에서 사도 바울을 연기한 제임스 폴크너.

영화 '바울'(Paul : Apostle of Christ)에서 사도 바울을 연기한 배우 제임스 포크너(James Faulkner)는 "사도 바울을 연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고백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부활절 개봉한 이 영화에서 그는 제임스 카비젤(누가 역)과 함께 출연했다. 그는 지난 8일 무비가이드 어워드 중 CP와의 인터뷰에서 "바울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가톨릭 역사가들이 내가 출연한 영화 '바울'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속적인 영화 프로젝트와 신앙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공유했다. 그는 "지난해 로스엔젤레스에서 드라마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으로 SAG 어워드를 수상했다. 그 시리즈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졌으며 매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노출이 있다. 그러나 신앙적인 영화는 가족 영화로서 우리의 더 나은 본성을 기념하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가 영화 '바울'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는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 그는 대본을 읽은 후 이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폴크너는 "영화 촬영을 하기 전 신앙이 지금같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을 연기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세상과 인간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강혜진 기자

카지노 회사가 기부한 돈 반환 "도박 지지하지 않아"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미국 남부 앨라배마 주 위텀카(Wetumpka)에 위치한 한 교회가 카지노 회사에서 기부한 2만 5천 달러를 다시 돌려줬다.

13일 AP통신을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위텀카의 퍼스트 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제임스 트로글렌 목사는 WSFA-TV와의 인터뷰에서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 윈드 크릭 카지노(Wind Creek Casino)의 기부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로글렌 목사는 "교인들이 기부에 대해 매우 감동했지만 도박을 지지하지 않는 자신과 그러한 신념을 가진 교인들이 기부금을 받아도 될지 고민했다"면서 "이 기부금이 토네이도의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O.C,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음날) 7: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기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으로 열방을 살리는 예배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어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유아,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김인철 담임목사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최성칠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임경남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Youth Services: Sung Hong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설교란… 성경의 무오성 사라지면 세속주의 들어와"

류응렬 목사, 제1회 목회 콘퍼런스서 역설



제1회 목회 콘퍼런스 '강단을 숨쉬게 하라'가 사랑의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1회 목회 콘퍼런스 '강단을 숨쉬게 하라'가 18일 사랑의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기독신문 주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류응렬 목사(미국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전 총신대 교수),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원로)가 '칼빈의 성경해석과 설교작성', '본문 묵상에서 설교 작성', '예수 중심의 해석과 설교 작성', '설교를 살리는 전달법' 등을 제목으로 강의한다.

첫 날 강의에서 류 목사는 "장로교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어떤 자세로 목회하고 설교할지 살펴보려 한다"며 종교개혁과 루터, 그리고 칼빈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종교개혁은 진리의 선포가 일으킨 변화로 성경해석과 설교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현재 루터의 설교 2,300편이 현존하고, 칼빈의 설교 2,023편 이상이 현존한다. 루터와 칼빈은 목회자이자 설교자이며, 말씀 선포로 삶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했다. 특히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ible)'였다"며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으면 가치관이 바뀌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 때 가정과 사회 체계가 바뀌는 것을 꿈꿨다"고 했다. 이어 류 목사는 현재 출석성도 3.5%인 독일과 출석 성도 0.7%인 프랑스의 상황에 대해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팔려나가는 문제는 강단이 무너지면서 일어나게 됐다"며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이 사라지면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칼빈의 성경관'에 대해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 오류 없는 진리임을 믿었다. 그는 성경 그대로를 드러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 하신다는 신앙이 있었다. 당시는 로마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던 시대였기에 '오직 성경'이란 말은 혁명이었다"고 했다. 또 류 목사는 "설교자는 태양이 아니라 달"이라며 △ 저자 중심의 해석을 할 것 △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것 △ 설교의 적용은 자신부터 할 것 △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할 것 △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전할 것 등을 강조했다.

김신의 기자

안양대 비대위, 대진교육재단 중원대 앞 항의시위

대진성주방면 관계자들 즉각 퇴진 촉구



피켓을 든 채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안양대학교 매각 사태와 관련, 안양대 재학생들과 교수진, 동문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은규 전 총장)에서 충북 괴산 중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항의시위를 18일 개최했다.

중원대학교는 지난해 12월 안양대 이사회에서 교육부에 승인 신청한 신임 이사 2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안양대 이사회 학교법인 우일학원 측은 지난해 8월 대순진리회 대진성주방면 측 관계 인사 2인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대진성주방면 산하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인사 2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이들 2인까지 승인이 완료되면 안양대 이사회는 이사장까지 총 5인이 관련 인사들로 채워지게 돼, 안양대 구성원들은 이사회에 의해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이 훼손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비대위 측은 학교법인 우일학원 측이 안양대학교를 뒷돈 거래를 통해 불법 매입하려 한다며 이러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사법당국의 해당 의혹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소속 중원대학교 총장 직무대행과 대학원장 등 2인이 현재 안양대학교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로 교육부에 신청된 상태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2인의 대진성주방면 측 관계자들을 학교 구성원도 모르게 이사로 승인받았다"며 "대진교육재단은 타종교인 기독 사학을 불법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들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법당국은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과의 뒷돈 거래를 통한 불법 매입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전형적인 불법 사학 매입으로 보이므로, 관계 당국이 해당 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진상을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재학생들,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동문들은 "대진성주회는 70년 기독학교인 안양대학교 매입을 즉각 중단하라", "대진교육재단 관계자인 문모 씨와 허모 씨는 안양대학교 이사직을 즉각 사퇴하라", "교육부에 이사 승인 요청 중인 대진교육재단 관계자 김모 씨, 이모 씨는 현 이력을 속인 안양대학교 이사신청을 즉각 포기하라", "대진교육재단은 안양대를 속이고 매입하려는 음모를 사죄하고 즉각 물러가라", "안양대 총동문회와 재학생, 교수협, 한교연, 한장연, 한교총, 한기총은 안양대의 대진교육재단 매각에 결사 반대한다"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 측은 교체 이사에 대한 인적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정관 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대웅 기자

변해야 한다



조 성 돈 교수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얼마전 중형교회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중형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다. 그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교회에 40대 초반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30대나 40대로 구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40대 초반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기했다. 잘 생각해 보면 40대 중반이후는 세대가 다르다.

그들은 소위 이야기하는 밀레니얼세대이다. 21세기가 들어오는 때에 대학생의 나이였고 더는 중고등학생이었다. 이들은 이해찬 세대로 그 윗세대와는 결이 다른 교육을 받았다. 문화대통령이라고 일컫던 서태지의 세례를 받아 기존 교육의 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법을 배웠다. 더군다나 이들은 인터넷의 혜택을 온전히 받은 이들이다. 사이버 민주주의의를 시작한 이들이다. 자기 의견을 만들 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이들이다.

거기에 핸드폰을 가지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으로 더욱 쉽게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들은 TGIF라고 하는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에 익숙하다. 사이버 네트워킹에 생활화되어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과 쉽게 친구가 되고, 의견을 나누고,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 세대들은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 본 적이 없다. 초중고, 대학교까지 질문이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해 본적이 없다.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 조차도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 기세에 눌려 입을 열 수도 없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질문할 수 있는 사고가 없었다.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내 의견을 만들고 질문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 질문이 아니라 의견을 말한다. 거기에 부당하다면 저항할 줄 안다. 무엇이 억울한 줄 아는 것이다. 대학교에서도 학기말이 되면 성적에 대해서 따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왜 그런 성적을 받아야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세대들은 확실히 다르다.

이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다. 생각도 있고, 의견을 말할 줄 알고, 저항할 줄도 아는 이들이 어른이 된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이들을 아직 아이 취급하고 있다. 40대만 해도 교회에서 발언권을 얻기가 쉽지 않다. 거기에 30대로 내려가면 청년으로 보는 분위기이다. 사회에서 이들은 벌써 자리를 잡고, 40대로 들어서면 회사를 은퇴하고 자기 일을 찾아야하는 때인데도 말이다.

아직도 가부장적인 권위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드물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유지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에 없이 더욱 그렇게 굳어지고 있다. 일반사회가 노령인구, 즉 65세 이상의 어른이 14%가 되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 보다는 두 배 이상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어른들이 정정하셔서 교회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젊은 사람z들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젊지만은 않은 어른들이 교회에서 버티지 못하고 뛰쳐 나간다. 3.40대가 그러하다는데 20대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와 노인 중심의 사회는 다르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젊은 세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들이 숨통을 트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김포공항의 초심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작년에 회의차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서 제주 가는 비행기로 갈아탔습니다.

문득 이민 떠날 때 생각이 났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 둘러 서서 예배드리며, 눈물 속에 작별했던 공항이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이번에 안 일이지만, 김포(金浦), 한자에서 보듯이 그 뜻이 "금을 던진 여울"이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투금탄이라고 하는 전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형과 아우가 길을 걷다가 황금 두 덩이를 주었습니다. 형제가 금을 나누어 갖고 공암진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다가 아우가 갑자기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형이 왜 그랬냐고 묻자 아우는 금을 줍고 나서부터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차라리 금을 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답을 했습니다. 형도 형제간의 우애를 소중하게 여긴 아우의 말이 옳다 여겨 황금 덩어리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이때부터 금을 던진 공암진을 김포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을 오던 김포가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금을 버리면서까지 형제애를 소중하게 지킨 곳이었다는 것이, 새삼,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오며 가졌던 초심을 상기시킵니다.

수많은 이별의 사연을 김포공항에 묻고 세셈트리오의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유행가에 눈물짓던 지난 세월들이 또다시 만만치 않은 이민 생활에 지치고 깨어진 상처들이 초심을 잃고 방황하게 했습니다. 미국에 살며 잊고 있었던 설명절을 상기하고 떡국이라도 한 그릇 더 챙겨 먹고 싶은 것은 나름 나이 값 좀 해야 하는 반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명절 후에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포스트 명절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로 두드러진 사회적인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다는데, 부모님 찾아뵙고, 형제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앉는 곳이 마냥 기쁨의 자리라기보다는 한 바탕의 싸움판이 되기 십상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롭게 시작했던 각오들을 무색하게 하는 욕심의 얼룩들 앞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 속에 얼마나 아파해야 했나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하에 숨겨논 나의 욕심들 때문에 얼마나 후회했나요? 그렇게 겪고 그렇게 많이 다짐을 했지만, 나도 모르게 다시 그 구정물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 옛날 떠나왔던 김포공항의 의미를 되새기며 던져 버릴 황금 덩어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다시 초심으로 새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5시 실버들의 도전(1)



정 운 길 목사
미주실버선교회

걸어온 인생의 발걸음을 돌아볼 때, 나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고백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다.

내가 태어난 때는 대동아전쟁의 절정기였다. 일본이 세계정복의 야욕으로 일으킨 2차 대전이 극에 달했던 1942년, 9월 7일 새벽 5시경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서 정(鄭)도(道)자, 선(善)자 되시는 아버지(당시 25세)와 어머니 이(李) 정(貞)자, 순(順)자 되시는 어머니(당시 28세) 사이에서 3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다. 선친께서 위로 큰형님 이름을 운탁(運晫))이라 지으시고 작은형님을 운영(運榮))으로, 그리고 내 이름은 운길(運吉)이라 하셨다. 아버지는 본관(本貫)이 진주(晉州)이며, 공대공파 가문의 대(代)를 이어오는 항렬(行列)에 따라 '옮길 운(運)' 항렬(行列)에 따라 우리 형제의 이름을 지으셨다. 어머니의 본관은 전주(全州)로 조선을 개국한 태조(太祖)의 후예이다.

당시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박해가 극에 달한 시절이라 입에 풀칠할 양식조차공출로 다 빼앗기고 심지어 집에 있는 놋그릇도 전쟁무기인 대포알 탄피껍데기를 만드는데 쓰려고 모조리 거둬갔다. 전쟁 막바지에는 소나무 송진을 화약의 재료로 쓰기위해 조선인들을 강제노역시켜 정말 살기 어려운 때였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때는 민족 최대의 시련기였다.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나도는 남편 때문에 나를 임신한 몸으로 춘천 효자동에서 누에고치로 실을 만드는 반도제지 공장의 여공으로 일했다. 중노동을 하면서도 받는 품삯은 형편없었지만 어머니는 우리 삼형제를 키우시며 알뜰하게 생계를 꾸려가셨다.

나는 복중에서 영양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데다가 태어나서도 어머니의 젖을 충분히 먹지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미숙아인 나를 업고 다닐 때면 이웃사람들이 "무얼 업고 다니느냐?", "혹시 먹을 것을 등에 감추고 다니는 게 아니냐?" 하는 등 의심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제대로 발육하지 못해서 포대기에 아기를 업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아버지는 25세 청년의 나이로 일제에 징용되었다. 징용자들이 겪은 노동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탄광 노동자로 일하다가 불의의 탄광 폭발로 돌아가셨다. 징집을 당하신지 반년도 채 안 된 2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보다 3살 위이신 어머니가 6개월 전에 생이별하신 아버지의 사망통보를 받은 때가 29세 청년이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신혼의 단꿈도 채 누리지 못하고 졸지에 생이별을 하신 것이다.

당시 강원도에서 일본군에 징용되어 강제노역을 하다가 최초로 일본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와 다른 한 분이 더 계셨다고 한다. 두 분의 유해가 춘천 기차역에 도착하자 역전에서 강원도 도장(道葬)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계속)

담임목사 청빙

두바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는 '이방의 빛이 되리니'를 사명으로 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1. 지원자격
- 연령 : 40세 전후
- 학력 : 정규대학 졸업 및 신학대학원 (M.Div) 졸업 또는 이상 소지자
- 경력 : 목사 안수 후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 목회 경력 5년 이상자(교단 : 제한없음)

2. 제출 서류
- 이력서 ····· 1부
- 자기 및 사모 소개서 ····· 각 1부
- 목회계획서 ····· 1부
-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1부
- 추천서 (2명이 각 1부씩 제출) (교수 또는 목회자 추천, 및 추천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필히 기재)
  추천인이 직접 제출 ····· 2부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졸업증명서 (대학교, 신학대학원) ····· 1부
- 목사안수증명서 ····· 1부
- 설교 동영상 파일 1~2편(최근 1년 이내)

3. 서류 제출 기한 3월 15일(금)까지

4. 제출 방법 : 두바이 한인 교회 홈페이지에서
(http://www.dubaikoreanchurch.org)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모든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 dubaidkc@gmail.com 으로 송부

5. 참고사항
- 본 교회 양식만 접수 받습니다. 서류미비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결정 후에도 취소 됩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Dubai korean church

Youth Minister
Beautiful Church

- **Categories** : Youth Pastor
- **Denominations** : Baptist-SBC
- **Job Type** : Full-Time

Job Description

The Youth Pastor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leadership, oversight and implementation of the youth ministry at Beautiful Church, which includes teens from thirteen years old to the age of eighteen. The Youth Pastor will work with the Director of Education Ministries m (DEM) for the goal of overseeing all ministries and events designed with the purpose of reaching and discipling teenagers in Christ.

Application Procedures

Interested and qualified individuals should send a cover letter, resume, sample message (MP3 or MP4), Personal Testimony, Calling to Ministry, 2 References Letter (One from Former Ministry) along with salary expectations electronically to beautifulchurch@hotmail.com. Candidates who appear to be a good match for both Beautiful Church and this position from a preliminary review of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will be contacted for interviews and further candidating steps.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기독일보 목회자 청빙 참고
www.kr.christianitydaily.com

Beautiful Church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 626-810-3455

전도사 청빙

뉴저지 은혜와 사랑교회
(미국장로교, 담임 : 소기범 목사)에서
아동부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 M.Div. 학위 소지 혹은 재학 중인 분
- 급여 : $1,200/월
- 사역 내용 : 아동부 목회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보내실곳 : jcworld21@hotmail.com
- 문의 : 목회부장 (201-522-3011)
- www.gracelovechurch.org

은혜와 사랑교회
GRACE & LOVE CHURCH

55 Magnolia Avenue Tenafly, NJ 07670
Tel:(201)567-353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STAR Certified State of California LICENSED SMOG CHECK INSPECTION & REPAIR STATION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323)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프로지 PRO-Z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주님미디어 새해맞이 이벤트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거치대포함
*사이트에서 샘플선택
인기상품 A형 스탠드배너
$160 (디자인 포함)

주님미디어 NEW YEAR EVENT
말씀 액자
$35 16x16inch 기준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손글씨로 제작된 말씀액자입니다.
주님미디어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물티슈
주보제작
교회로고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이찬수 목사 설교, 청중들 고민과 아픔 잘 담아내”

[인터뷰] 아트설교연구원 김도인 목사(下)
가장 중요한 글쓰기 비법, 날마다 1장씩 쓰는 것



김도인 목사는 이찬수 · 유기성 · 옥한흠 목사의 설교에 대해 △논리성이 특출나다 △서론을 낯설게 들어가거나 청중이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전개한다 △명쾌한 개념 설명과 탁월한 적용 △반전이 많아 한눈 팔 틈 없는 역동적 구성 △성경뿐 아니라 넓고 다양한 재료로 논증을 적확하게 구성한다 등의 공통점을 꼽았다. ⓒ이대웅 기자

아트설교연구원 김도인 목사는 ‘아트설교 시리즈’ 첫 번째 책 〈설교는 글쓰기다〉에서 들려지는 설교의 3가지 요소를 말한다. 설교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설교자 안에 청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먼저 설교자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청중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설교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거나, 청중의 마음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목사들은 말을 기본적으로 다 잘 하다 보니, 글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건 아니신지요.

“거의 다 그렇게 목회자들의 스피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다, 50대 중반쯤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갈 곳도 없고 난감합니다. 우리 나이대 쯤이면 교회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기만의 콘텐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음도 좋지 않고, 말도 빠릅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있으니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해도, 내용이 안 좋으면 강의 못 듣겠다고 합니다. 스피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성, 그리고 콘텐츠를 원합니다.

제가 스피치를 못 해서 한 대학에 스피치를 배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기독교인들도 제게 ‘여기 왜 오셨냐’고 하더라고요. ‘말을 못해서’라고 하니, ‘콘텐츠만 좋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말을 못해도 내용만 좋으면 다 들으러 올테니, 여기서 배울 돈으로 차라리 맛있는 것 사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만 배우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못 하지만, 평생 같이 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콘텐츠의 힘입니다.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요즘 청빙 실태가 어떻습니까? 어차피 설교는 다 못하니, 착하고 말 잘 하는 사람 데려오자고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최고의 콘텐츠가 이미 있는데요.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중요합니다. 설교 잘 하시는 분들, 옥한흠·이찬수 목사님 등의 설교를 분석하면, 구성 요소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5-6개에 그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력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성경 풀이만으로는 안 됩니다. 글을 쓸 때도 A4 1장 쓸 때와 5장 쓸 때 논리 구성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논리가 없으면 듣질 않습니다.

설교는 글이 반, 구성이 반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에는 반전도 거의 없고, 구성 요소에 대해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A4 5장 정도의 내용을 15가지 구성 요소를 넣어 하나의 포인트로 논리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설교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목사들의 글이 안 좋은 것입니다. 스피치가 딸리는 게 아닙니다. 구성 요소의 다양성과 반전 가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문학의 시대인데, 문학적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단편소설을 많이 읽으라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은 그것뿐 아니라 에세이나 카피라이터들의 책까지 읽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글과 구성에 대한 부분을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어려운 책만 읽으면, 설교가 안 됩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듣는 사람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고려가 없었습니다. 설교는 쉬워야 합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는 성경을 에세이로 풀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글을 계속 써야 하는 이유는, 청중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유학하고 온 목회자들의 글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도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묵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깊이 있는 묵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설교하듯 묵상해야 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으로 설교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제 책으로 어떤 분이 신대원 지망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설교하듯 묵상해야 합니다.”

-강해설교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강해설교 역시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 하나를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새로운 강해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근거해 하나의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이 강해설교라면, 물론 가능합니다.

단 저는 구성 요소를 강조합니다.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락마다 풍부하게 구성 요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는 인문학이다〉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틀만 따라해도 반응이 좋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배운다〉는 옥한흠 · 이찬수 · 유기성 목사의 설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설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찬수 목사님은 논리가 좋습니다. 청중들의 고민과 아픔, 그들의 마음을 잘 담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청중들과 동일시하고, 진정성이 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보다 설교에 구성 요소가 많고, 글도 투박하지 않고 매끄럽게 논리가 전개됩니다. 설교의 3요소가 설명·논증·적용이라면, 이 틀을 잘 사용합니다. 이찬수 목사는 논증이 많습니다.

저는 외국인 설교자들의 책을 ‘많이’는 보지 말라고 합니다. 감성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이 좋지만, 한국 상황과는 너무 안 맞다고 봅니다. 오래 전 설교자들의 글도 좋지 않습니다. 현대인들과 감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한국인 설교자들의 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글로 봐서는 옥한흠 목사님을 가장 좋게 평가합니다. 톰 라이트도 우리와 문화가 안 맞고, 월터 브루그만도 읽지만 재미있진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책이 정서에 맞습니다.”

-글쓰기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1장씩 쓰는 것입니다. 또 쓰는 법을 배워야 하고, 잘 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소 5장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3년간 공부하듯, 글쓰기도 3년은 공부해야 합니다. 회원들을 보면 대개 3년 정도 하면 글이 좋아졌습니다. 목회 잘 하는 분들이 글도 잘 쓰십니다.

신학교에서 하루 속히 글쓰기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인문학은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질문들에 대한 답 찾기입니다. 목회를,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일입니다.

신학만 10년 가까이 배우다 보면, 사고의 폭이 좁아집니다. 설교를 잘 하기 힘들어집니다. 다시 사고의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극과 극이 만나야 합니다. 신학과 인문학이 만나서, 깨지고 부딪쳐야 합니다.

설교도 사고력에서 좌우됩니다. 주로 보수 신학을 하신 분들의 사고가 넓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 목회하기 힘듭니다. 여전히 자신들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설교를 잘 하는 줄 아십니다. 내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교를 배우려면, 먼저 나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청중과 소통이 되는지, 청중이 내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보수 신학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니, 자신도 위대한 줄 압니다.

저도 10년 공부를 통해 바뀌었습니다. 저도 극보수였고, 하나님만이 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의 반응을 통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잘 한 것 같습니다. 평생 일하는 것이 꿈인데, 건강만 허락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막 쓰고 싶습니다. 올해 꿈은 일반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꿈이 있으시지요.

“주변에서 60세 넘어서 꿈 꾸는 사람 처음 봤다는데,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일본의 정경숙이나 한국의 건명원 같은 교육시설을 만들어, 설교자들을 모아 10년간 생활비를 주면서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과목은 성경과 독서, 글쓰기와 영성 4가지입니다. 이름도 ‘명문원’이라고 지어 놓았습니다(웃음).

인문학과 신학을 조화시켜 10년간 가르치면, 설교가 잘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10명의 설교 대가만 나오면 사회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올해부터 신대원생들과 묵상 동아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설교는 글쓰기다〉, 〈설교를 통해 배운다〉, 〈설교는 인문학이다〉까지 책이 나왔는데, 묵상에 대한 책이 나오면 장신대와 총신대, 한세대 등 5곳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도인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각각 공부했다. 서울 성문교회와 왕십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으며, 현재 서울 잠실 주담교회를 섬기고 있다. 아트설교연구원 설립 후 8년 이상 전국을 다니며 목회자들에게 독서, 설교 구성,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으며, 성도들에게도 글 쓰기와 책 쓰기를 강의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3권의 책 외에도 독서에 대한 〈이기는 독서〉, 에세이 〈아침에 열기 저녁에 닫기〉, 〈아침의 숙제가 저녁에는 축제로〉 등을 썼다. 저널 〈아트 프리칭(Art Preaching)〉도 발행하고 있다.로 있다. 이대웅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입학/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 집 과 정

◈학사 과정 (B.Th/B.A)
-신학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석사 과정 (M.Div/M.A)
-교역학석사
-신학석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박사 과정 (D.Min/Ph.D)
-신학박사
-선교학박사
-기독상담학철학박사
-기독교육철학박사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신입생 | 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인구절벽 시대, 전 세대가 함께 주일예배를”

최진봉 박사, 세대통합적 주일예배 전환 방안 제시

교회 구성원들이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를 앞두고, 연령대와 관계없이 영아부터 노년까지 교회 전 구성원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예배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인구절벽 시대의 실천신학 과제’를 주제로 15일부터 1박 2일간 부평 카리스호텔에서 개최된 제7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진봉 박사(장신대)는 ‘인구절벽 시대에 드리는 주일공동예배 제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이를 발표했다.

최진봉 박사는 “인구절벽으로 빚어질 교회 구성원 숫자의 급감 앞에서, 교회의 실천에 대한 근본적 도전받고 있는 실천들 중 하나가 ‘세대들을 분리해 드리는 주일예배’”라며 “세대분리형 주일예배는 교회됨의 정신인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구조이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각기 다른 성도들을 한 몸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다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박사는 “한국교회가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세대통합에 기초한 주일공동예배’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세대분리형 주일예배는 선교 초기 이래 자연스럽게 수용된 이래, 오늘날까지 주일예배의 일반적 제도로 자리했다. 교회는 교회학교 예배와 장년 예배를 동일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정하기에, 주일의 세대분리 예배 자체에 대한 뚜렷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다음세대가 ‘조용한 탈출(silent exodus)’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분리적 예배구조에 대한 대안적·보완적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학술대회 기념촬영 모습. ⓒ학회 제공

세대분리형 예배는 공동체성 저해, 공동체성 위해 세대통합형으로 전환해야
세대분리, 노(老)와 소(小), 장(長)과 유(幼) 구분하는 유교적 서열문화 영향 받아
공동예배는 회중의 참여가 특징, 모든 세대의 예배자 참여하도록 재구성

최진봉 박사는 “기독교 예배는 본래적으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로서, 모든 세대가 분리되지 않고 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교회학교 예배 구조가 연령별 신앙발달 특성에 따른 동질 그룹별로 구분해 독자적 예배를 드리는 경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성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세대분리형 주일예배가 한국교회에 정착한 바탕에는 초기 선교사들이 전래한 방식보다, 한국 사회의 노(老)와 소(小), 장(長)과 유(幼)를 구분하는 유교적 서열문화 모방이 있었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제의적 공간 안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기보다는 그들을 분리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사회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16세기 개혁교회 예배의 세대통합’에 대해 “16세기 츠빙글리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으로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발생시킨 성도들의 연합으로 이해했다”며 “그들이 말하는 성도들의 연합은 모든 신자들의 사귐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남녀노소 간의 구분이 없는 교제”라고 했다.

최 박사는 “16세기 개혁교회의 주일예배는 사제 중심과 특정인 성찬의 중세 예배와 달리 ‘공동예배(corporate worship)’로 불렸다”며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적 부르심으로 한 자리에 회집하는 공적인 자리였고, ‘신자들의 교제(communion of saints)’로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예배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공동예배로서의 주일예배는 회중들의 참여가 특징이었다. 이는 설교의 회복과 자국어에 의한 설교, 설교 후 신자들과 이웃·나라를 위한 공동기도, 단순한 곡조로 모두 따라부를 수 있는 음악 등 3가지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시도는 누구도 배제되거나 분리됨 없이 교회에 속해 하나님의 자녀 된 신자들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였다. 예배를 통해 성도들 간의 신비하고 온전한 연합이 발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진봉 박사는 “츠빙글리는 아이들을 맞아들인 예수님에 근거해, 어린아이들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심치 않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지인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며 “당시 유아세례는 교회가 유아를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환영식과 같았고, 이 아이들은 비록 성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들이 데려와 함께 있게 했기에 공동예배에서 부모나 어른 신자들과 분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16세기 개혁교회는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가 공동예배에 참여하다 10세 전후 입교를 받은 후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부모는 입교 1년 전부터 신앙문답교육(catechisme)을 받도록 했다”며 “입교 예비자들은 1차로 주일예배와 주중예배 설교를 통해 신앙교육을 받고, 신앙문답교육을 위한 예배가 따로 정오에 진행되기도 했다. 입교 후 신자들은 주일과 주중예배 설교를 통해 교리교육과 말씀교육, 인격형성교육을 반복적·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는 “요컨대 16세기 개혁교회의 주일 공동예배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을 분리하지 않은 세대통합예배였다. 그들에게 예배와 설교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이 함께 신앙과 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공동체 예배로서 주일 공동예배와 신앙 및 교리교육 중심의 정오예배를 구분했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16세기 개혁교회의 주일예배는 단순했지만 가족이 함께했다. 세례받은 유아부터 아동과 공동체 앞에 신앙고백을 한 청소년들과 그 이후 세대인 어른 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으며, 성경을 읽고 설명되는 설교를 들었으며, 교제의 봉헌을 드리고 성찬에 참여했으며, 같은 바람과 소망을 갖고 세상을 향해 함께 파송받은 예배였다”며 “세대들 간의 구분과 분리를 낳은 예배가 아니라, 신자들을 연합케 하면서 다양하고 상이한 세대들이 사귀고 어우러지는 실질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예배’였다”고 강조했다.

최진봉 박사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일예배는 갈수록 세대분리가 조밀하게 세분화돼 교인 수에 따라 영아부부터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까지 분화되고 있다”며 “보다 심각한 현실은 주일예배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간, 그리고 자녀 세대들 간의 분리로서, 이는 교회의 참모습과 충돌하는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기독교 예배는 역사적으로 나뉘고 분리되고 찢겨진 것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싸매어지고 한 몸이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제”라며 “16세기 개혁교회의 전통은 성경적 교회론이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다그치고, 주일예배와 교회학교가 서로 본래적 모습을 되찾고 회복할 것을 가르친다”고 제언했다.

세대분리적 주일예배 현장을 세대통합적 예배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첫째로 예배 인도자는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해야 하고, 예배실은 꽉 차야 한다는 확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에 대해 “예배의 빈약한 외적 환경과 구성요소가 예배를 초라하고 빈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인도자의 욕구와 필요 이상의 열의가 예배를 쇼나 이벤트가 되게 함으로써 예배를 초라하고 빈약하게 만들 수 있다”며 “찬양대가 화려하지 않아도, 악기나 조명, 스크린이 없어도, 피아노나 오르간 반주가 부족해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로 교회는 교회학교가 그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는 “교회학교는 교회 내의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말씀과 교리로 교육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교회학교는 자체 예배를 없앰으로써 발생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신앙과 교리교육, 영성과 전인생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위한 부모교육과 교재를 개발하고 훈련을 지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셋째로 유아세례와 입교 예식에 따른 부모와 자녀 세대들의 신앙문답과 교리교육을 보다 밀도 있게 체계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선 “칼빈과 츠빙글리는 세례받은 유아가 바로 성찬을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봤고, 입교 후 참여토록 했다”며 “만일 유아세례자에게 바로 성찬 참여를 허락할 경우 입교 예식의 존폐 문제를 다뤄야 하고, 신앙고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참여가 가능한 신학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로 모든 세대의 예배자들이 예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예배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는 “상이한 세대의 예배자들이 친밀한 공동체적 교감과 감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함께 몸을 부딪치고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최진봉 박사는 “예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성도들의 사랑의 연합이 목적이라”며 “비록 서툴고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배를 통해 상이하고 다양한 예배자들이 만나고, 그 안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로 있는 기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에서는 이 외에 주상락 박사(아현성결교회), ‘인구절벽 시대의 대안적 교회개척’, 송준용 박사(국제신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세대를 위한 목회적 대응 방안’, 이수인 박사(아신대)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조성호 박사(서울신대) ‘인구감소 현상이 실천신학 연구방법론에 끼친 영향: 리더십과 영성을 중심으로’, 최종일 박사(웨스트민스터대학원대) ‘인구절벽 시대 기독청년 목회 돌봄적 이야기 치료 연구’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대웅 기자

2019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윤학렬 감독 “100년전 그분들의 만세는 간절함”



윤학렬 감독



1919유관순-그녀들의 조국의 한 장면.

월드컵 응원단〈붉은 악마〉, 〈무릎팍 도사〉, 드라마〈도깨비〉 도깨비가 긍정적이며 친근한 존재로 둔갑

“어떻게 모진 고문을 1년 넘게 17세 소녀가 견뎌냈을까”

“‘숨어서 만세를 외칩시다.’ 17살 소녀가 지속적으로 그 고문을 이겨내면서 옥중만세까지 할 수 있었던가. 300도가 넘는 인두로 온몸을 지져 하체가 다 파손되어 여성성을 다 잃고, 걸을 수도 없게 되었다. 어떻게 그 모진 고문을 1년 넘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물음표였다. 그런데 이 컨텐츠를 캐다가 어느 순간에,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이 왔다.”

윤학렬 감독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었다. 17세 소녀가 감당했던 고문과 목숨을 걸고 전국에 독립문 전단지를 배포했던 만삭의 임산부를 떠올리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먹였지만 힘이 있었다.

지난 201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설문조사한 ‘기독교인의 신뢰도’가 20.2%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켜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오늘날, 1919년 3월 1일 민족항쟁을 되돌아보며 “기독교인이 민족의 양심”이었음을 외치는 윤 감독의 외침에는 준엄함이 서려 있었다.

3월 개봉을 앞둔 〈1919유관순-그녀들의 조국〉을 제작한 윤학렬 감독이 ‘미주 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 통일 전문 세미나’가 지난 14일 사랑의빛 선교교회에서 열렸다.

그는 “영상의 영적 분별력과 영상 문화의 영향력”이란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며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라며 문화가 지닌 영향력을 환기했다. 그는 먼저, 한류 드라마의 원조인 〈사랑이 뭐길래〉, 〈겨울연가〉, 보수적인 아랍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대장금〉 등을 예로 든 후 〈별에서 온 그대〉가 방영될 당시 중국 내에서 일어났던 현상을 설명했다.

“극중 전지현이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중국인들이 따라하자 조류 독감 위기로 매출이 급감했던 양계 농가에 희망이 되었고 중국인 다수가 이 드라마를 보며 한국문화에 열광하자 시진핑 주석이 대노했다.”

그는 “전세계 거리에서 엑소와 방탄소년단의 군무를 따라 추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며 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문화의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 월드컵 응원단 ‘붉은 악마’ 에서 사용된 ‘치우천왕’ 상징이 한국인들 안에 친근하게 각인되어 있다며, 이후에 어떻게 이 상징이 친근한 대상으로, 긍정적인 대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훑었다.

“무릎팍 도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깨비 상징이 스포츠에서, 영상, 코메디로 들어 왔다. 강호동이라는 친근감이 있는 개그맨이 법사로 나오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이 나와서 자신의 고민과 힘들었던 것을 털어놓는다. 오프닝에서 일명 후크송이라고 하는, 쉽게 따라하게 되는 노래가 나오는데, 굿을 하면 법사가 귀신을 부르기 전에 망자의 혼을 부르는 노래와 유사하다. 이 프로그램 이후 대학가 앞에 점보는 집이 많이 늘어났다.”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줄거리는, 천년전 억울하게 죽은 장군이 가슴에 칼을 꽂고 도깨비로 사는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검을 뽑으면 죽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깨비는 극중에서 여주인공인 김고은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다 나타나서 그를 돕는다. 여기서 도깨비는 나를 도와주는, 내 슬픔을 치유해주는, 연인으로 발전된다. 이 드라마 방영 당시 사람들은 ‘나도 도깨비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홍대앞 대학로에서 상연된 뮤지컬 〈록키 호러쇼〉를 예로 들며, “연기자의 입장에서 대중들에게 더 높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남자인데 여자 역할까지하면 사람들은 그 배우를 뛰어난 연기자로 생각하게 된다.” 그는 록그룹 퀸(Queen)의 프레디 머큐리를 소환해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영상을 보여주며,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편협하다’는 생각이 사람들 안에 자리 잡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대간 단절이라는 골을 메운 영화〈국제시장〉과 2002년 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6월 29일 발생한 연평해전을 다룬 영화〈연평해전〉을 통해 영상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전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한편으로 아이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소리만 지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도대체 이야기가 안 통할 것 같은 그 할아버지, 그 고모, 그 삼촌, 그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독일 사람들이 하지 않던 탄을 캐는 일을 하던 어르신 안에 나라를 향한 사람이 있었다. 나의 오늘의 이 노동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수 있다는 사명이 있었다.”

“북한과 화해 정책을 펴고 있을 때 많은 해병들이 죽었다. 월드컵 4강전을 앞두고 있었고,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을 펴고 있을 때라 국가적으로 이 사건에 무관심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는가. 십수년 후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독립영화로 〈연평해전〉이 제작되었는데, 6백만명이 관람을 하면서 그 날의 진실을,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젊은 해병들의 희생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됐다.”

마지막으로 〈1919유관순-그녀들의 조국〉을 공개하며, 이 영화를 제작하도록 이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전했다.

“약속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던 길에 서대문역사박물관에 들리게 됐다. 유관순이 옥고를 치른 여옥사(女獄舍) 8번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유관순 열사 외에 8분이 계셨다. 그분들은 동학혁명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 시각장애인, 기생 등이었다. 올해가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도 모른 채 이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인터넷에 발표했는데 마침 대한민국 정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활동을 하겠다고 발표가 나오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

“이 영화는 100년전 기독교인에 대한 영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100년전 목사님들은 청년들을 가르치는 데 생명을 바쳤다. 그들을 바르게 세우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 옥사에 갇혀 있던 분들도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국에 독립문 전단지를 배포했다. 만삭의 임산부가 앞장서서 만세 운동을 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리스도인이 민족의 양심이었으니까. 100년전 기독교인들에게 만세 운동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 운동이었다. 소중한 것을 빼앗겨 봐야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안다.”

그는 영화를 제작하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다고 했다.

“‘숨어서 만세를 외칩시다.’ 100년전 그분들의 만세는 간절함이었다.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있다. 17살, 제 딸보다 더 어린 소녀가 지속적으로 그 고문을 이겨내면서 옥중만세까지 할 수 있었던가. 300도가 넘는 인두로 온몸을 지져 하체가 다 파손되어 여성성을 다 잃고, 걸을 수도 없게 되었다. 노순경이라는 간호사를 면회왔던 스크랜튼 선교사가 일어서지 못하는 유관순을 보고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유관순이라는 소녀를 바라보는 스코필드의 눈빛에 거룩한 감동의 빛이 서렸다.’ 어떻게 그 모진 고문을 1년 넘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물음표였다. 그런데 이 컨텐츠를 캐다가 어느 순간에,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럴 수 있겠다. 자기의 죽음으로 후대에게 남길 사명을 갖고 있었다면 이겨낼 수 있었겠구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2019년에 이것을 남과 북이 알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이 영화를 제작한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화를 통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위해서 라며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진정성이 이 영화를 관람하게 될 청년들에게 민족이 무엇인지,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영화가 되길 바란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데 청년이 깨어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이 시대 청년들이 깨어나야 할 것을 강조했다.

주디 한 기자



CMM Since 1996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의료비 대책 세우셨습니까?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의료비 나눔을 통해 의료비 걱정을 해결합니다.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4만여 성도들이 참여해, 짐을 서로 지라 (갈 6:2)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의료비 나눔과 중보 기도로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선교회 산하에서 1996년에 시작된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지난 23년 동안 문제없이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소수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 단체입니다.

23년 역사의 CMM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건강합니다!

- 저렴한 회비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질병당 $150,000)
- 미국 내 의사나 병원 제한 없이 지원
-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골드플러스 회원은 건강검진비 지원 ($500/1년)
- 새 회원 소개 시 회비 크레딧을 주는 Member Referral 제도
- 장례비 보조를 위한 Life Plan (사망시 평균 회비의 100배 지원)
- CA 샌디에고 인근 라모나 기도원/쉼터 이용시 할인 혜택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비 Credit을 드립니다.

Life Plan
회원 사망시 장례비* 지원
*평균 회비의 100배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기독의료상조회는 의료 보험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입니다.
비싼 보험료, 높은 디덕터블로 꼭 필요할 때 도움 받기 힘든 일반 의료보험과 비교해 보세요.

CMM 기독의료상조회,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저렴한 회비
월40불부터 가입 가능
(자녀 1명만 내면 나머지 자녀 무료)

낮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이상 의료비 할인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다양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처방약, 임신 및 출산, 입원/수술비 등

골드플러스 건강 검진비 지원
매년 $500 건강 검진비

의료비 지원금
질병당 $150,000

Burden Sharing
15만불 이상 의료비는 전 회원이 함께 나눠 100만불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mmlogo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M Since 1996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Owned by Logos Missions, Inc.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대표전화 773-777-8889 FAX 773-777-0695

CMM 캘리포니아 가입문의:
직통: 714-333-7487 Email: sungaeshin@christianmutual.org
캘리포니아 사무실 :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인터넷가입 www.cmmlogos.org

CMS 승인 기관